

제 1 교시

언어추론

계열 공통

성명: _____

수험 번호: _____

홀수형

1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00 ~ 10 : 30 (90 분) 입니다.

0. 밑줄 친 낱말이 바르게 쓰인 것은?

- ① 그는 경력이 일천한 만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노회하다.
- ② 그는 질박한 사람이어서 화려한 일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 ③ 그는 자기만 아는 후덕한 행동 때문에 주변의 비난을 샀다.
- ④ 우리는 평소에 자별한 사이라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
- ⑤ 예상대로 일이 잘 해결되고 보니 그저 황망할 따름이다.

1. 어문 규범에 맞는 문장은?

- ① 웬만하면 손톱은 낮에 깎는 것이 좋겠구나.
- ② 그 집 셋째 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실패했다.
- ③ 나의 바램은 내 적성에 걸맞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 ④ 그동안의 고생만으로도 죄값은 충분히 치루었다고 본다.
- ⑤ 계곡물에 한동안 발을 담궜더니 몸 전체가 으시시해졌다.

2.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예술을 정의하는 일은 인생을 정의하는 일보다 어렵다. 그것은 예술이 인생만큼 다종다양한 조건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② 그의 취미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방대한 독서였으며, 아무리 중요한 약속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반드시 귀가해서 독서 시간을 지켰다.
- ③ 다음 달 중순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1 개월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위원회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 ④ 자연은 인간에게 온갖 혜택을 주지만 재앙도 안겨 준다. 오만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겸허하지 않으면 재해를 주기 때문이다.
- ⑤ 관계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학생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학칙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4~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탈산업사회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 중의 하나는 생산성과 성장의 원천이 지식의 창출에 있으며, 이것이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모든 경제 활동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탈산업사회론자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는 실제로는 산업사회의 절정기인 미국의 20세기 전반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는 지식에 기반을 둔 생산성과 성장,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제조업 고용이 절정을 이루었던 산업 경제 시기의 특징이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이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면, 지식을 기준으로 산업 경제와 탈산업 경제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나누어야 한다.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의 경제 구조를 역사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은 정보 기술 혁명이다. 이는 정보 기술이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 전파되어 하부 구조로서의 세계 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성 계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탈산업주의보다는 그 흐름의 기술적 기반을 강조하는 정보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산업사회론자들은 또한 탈산업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의 중심이 재화 생산으로부터 서비스 생산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선진 경제에서 대다수 고용이 서비스 부문에 속하고 서비스 부문이 GN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제조업이 사라지고 있다거나 서비스 경제의 활성화가 제조업의 역동성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GNP의 24%는 제조업에서, 25%는 제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또 다른 분석상의 혼란은 하나의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탈산업화를 주장해 온 분석가들은 그 밖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간과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과 1997년 사이에 선진 국가들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주요 산업화 국가들에서는 대폭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선진국 이외 지역의 신규 제조업 고용 창출이 선진국의 제조업 고용 감소분을 상쇄하거나 넘어섰던 것이다.

직업 구조에 대한 탈산업사회론자들의 전망은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등 정보와 관련된 직업이 성장하고 이 정보 직업군이 새로운 직업 구조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정보 직업군을 포함하는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직업 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은 국가마다 다르다. 1920년과 1990년 사이에 선진 자본주의 G7 국가들(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의 자료를 보면 탈산업사회로 여겨지는 국가들 간에도 직업 구조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리직의 경우, 1990년에 미국은 12.8%인 반면에 일본은 3.8%로 그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다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미국의 경우가 탈산업사회론자들의 주장과 대체로 잘 들어맞는 것은 그 모형이 미국의 사례를 이론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탈산업사회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 그 가정에 관한 것이다. 탈산업사회론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직업 및 고용 구조상

의 특징이 역사적 과정에서 서로 결합하고 변화되어 단일한 모형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과 분석 구조는 사실상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자본주의를 정의하고 생산·분배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취했던 것과 유사하다. 분업을 통해 부(富)가 증가된다고 보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은 영국의 산업화 경험에만 기초하였으며, 전 세계의 사회 경제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예외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각 국가의 직업 구조와 고용 구조는 세계적 생산, 유통, 관리 등의 구조에서 그 국가가 차지하는 위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반드시 동일한 모형으로 변화될 것으로 가정하기는 힘들다.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국가별 직업과 고용의 변화는 미국의 경험에 기초한 탈산업사회론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3. 글쓴이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 ㉠ 세계화 시대에 정보 기술을 기준으로 선진국 경제와 후진국 경제를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 탈산업사회론은 경제 부문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제 구조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고 있다.
- ㉢ 20세기 전반기에는 생산성과 성장의 원천이 지식이었으나, 20세기 후반기에는 그 원천이 정보 기술로 변화되었다.
- ㉣ 정보 기술의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는 세계 경제 체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 ㉤ 산업 경제와 탈산업 경제는 모두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고용 구조의 차이를 기준으로 새롭게 구분되어야 한다.

4. <보기>의 사례 중 글쓴이에게 유리한 것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

ㄱ.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ㄴ. 1990년 영국과 일본의 정보 직업군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다.
 ㄷ. 20세기 후반 프랑스와 독일에서 제조업 비중이 비슷하게 감소하였다.
 ㄹ. 20세기 후반 캐나다의 직업 구성에서 화이트칼라 직이 크게 늘어났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 ㉠을 탈산업사회론과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진술한 것은?

- ㉠ 사회 변화의 동인이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 ㉡ 사회 이론은 선진적인 국가를 모형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 대표적인 국가의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일반화될 수 있다.
- ㉣ 산업화의 단계와 관계없이 여러 국가의 경제 구조상 주요 특징들은 지속될 것이다.

⑤ 개별 국가의 사회 경제적 경험은 본질적인 부분과 예외적인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다.

[7~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연극은 현실의 재현을 의도했던 예전의 연극과는 다른 세계를 창조한다. 눈에 보이는 것, 언어로 지시된 것만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믿음 위에서 있었던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세계는 새롭고 낯설다. 현대 연극의 텍스트는 고정된 의미를 제시하기보다 관객 스스로 텍스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을 요구한다. 물론 관객의 해석이 작가의 의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의 가능성이며, 현대 연극 텍스트는 관객이 부여하는 의미로 그 무게를 더해 가게 된다.

현대 연극에서는 오브제도 이러한 해석 행위의 좋은 대상이 된다. 예전의 연극에서 오브제는 극중 인물의 형상화와 상황의 전개를 돕는 소품으로, 단지 리얼리티의 재현 도구로 사용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현대 연극에 이르러 오브제는 극적 상상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표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연극은 ‘오브제와의 유희’라고 할 만하다. 무대 공간을 자신의 창조력이 집중되는 터전으로 삼게 된 연출가는 오브제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무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오브제를 배치하고 활용하는 총 책임자로서 연출가는 새로운 의미 창조의 중심에 선다. 예전의 연극이 극작가 중심이었다면, 현대 연극은 연출가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폴란드 태생의 극작가 칸토르가 직접 쓰고 연출한 ㉠ <죽음의 교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죽음의 연극’이자, 죽은 자들과 산 자가 ‘교실’에서 만나는 ‘제의(祭儀)의 연극’이다. 나이가 든 모습의 연기자들은 아이 크기만 한 인형을 안거나 업고 무대인 교실에 등장한다. 교실 의자에 앉혀진 아이 인형들은 노인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 또는 전쟁터에서 죽은 이들을 상징한다. 무대 한편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들은 군인들에 의해 학살되는 인형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 인형들이 재현하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관망하기도 한다. 이들은 과거에는 그 사건을 직접 체험했지만, 지금은 무대 위에서 연기자이자 사건의 관망자가 된다. 인형들에게 벌어진 사건은 무대 위에서는 연기자들이, 객석에서는 관객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들이기도 하다. 행복한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 잔인한 전쟁의 참상,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죄의식과 피해 의식이 여러 시선을 통해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연극에서는 인형들이나 연기자들에 섞여 무대 위에 선 연출가의 존재가 특이하다. 무대 위의 연출가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의 오브제로 제공한다. 이러한 행동은 ‘왜 나는 무대 위에 올랐는가? 연극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연출가 자신의 반성적 성찰도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신인 동시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일지 모른다.

이와 같은 연극을 접한 관객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작품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 중에서 오브제가 지닌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 오브제는 이제 관객들의 해석을 기다리는 기호, 곧 관객과 무대를 이어 주는 가교가 된다. 관객은 오브제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내거나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브제는 공연의 영역에 속해 있는 동시에 관객들의 삶에 속해 있는 것이다.

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현대 연극은 극작가에서 연출가로 중심이 변함에 따라 텍스트보다 오브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 ② 현대 연극은 작가, 연출가, 관객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오브제의 심층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지향한다.
- ③ 현대 연극에서는 관객의 자유로운 의미 해석을 위해 작품 속에 작가와 연출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삼간다.
- ④ 현대 연극에서 오브제는 무대와 관객이 공유하는 기호이지만 그 기호의 의미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 ⑤ 현대 연극에서 관객은 오브제 덕택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무대 공간에 몰입함으로써 객관적 의미에 도달하게 된다.

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실’은 관객이 과거의 사건을 반추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하는 장(場)이 된다.
- ② 인물들의 분신인 인형들이 중요한 오브제로 활용될 때, 배우와 오브제의 전통적인 위계질서는 바뀐다.
- ③ 작가이자 연출가인 칸토르가 무대 위에 등장할 때, 그는 연기자로서 작품의 다층적인 해석을 한 몸에 통합시켜 전달하는 해설자 역할을 한다.
- ④ 연출가는 회상하는 자아와 회상되는 자아 사이의 만남의 계기를 제공한다. 연출가 자신도 과거의 인물이자 회상하는 주체로 간주될 수 있다.
- ⑤ ‘제의’는 죽은 이들의 사연을 담되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 주관된다는 점에서 현재적이다. 관객과 배우, 연출가는 모두 이 제의의 참여자가 된다.

8. 위 글의 ‘아이 인형’과 <보기>의 ‘아이 인형’ 사이의 공통점을 바르게 진술한 것은?

<보기>

소 무: (해산하려고 진통을 시작한다.)
 취바리: (해산모를 부른다.)
 해산모: (해산 제구와 아이 인형을 싸 가지고 깨끼춤으로 입장한다.
 소무의 배를 문질러 주고 아이를 받는다.)
 취바리: (까치걸음으로 마당을 돌면서) 이것아, 어서 빨리 해산시켜라.
 (아이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허! 이거 봐라. 삼신님이 나
 어려운 줄 알고 한 벌 옷을 다 해 보냈구나. (노래조로) 거지
 거지 거지야, 굴레, 저고리, 행전, 토시, 고무신꺼정 몽조리
 신었구나.
 취바리: (아이 소리로) 아버지 —.
 취바리: 왜?
 취바리: (아이 소리로) 나 좀 업어 주 —.

- ① 해학을 유발하는 오브제로서 연극의 유희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 ② 경험적 시간 질서를 초월해 무대의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게 해 준다.
- ③ 삶과 죽음의 경계를 표현함으로써 제의적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 ④ 인물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재현하여 다의적인 의미 해석을

유도한다.

- ⑤ 연기자의 분신으로서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10~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나라에서 온 손님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치세(治世)의 음(音)은 평안하고 망국(亡國)의 음은 애처롭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안정과 혼란은 정치에 달려 있고, 성음(聲音)은 그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애수의 감정은 금석(金石)에서 나타나고, 안락한 감정은 관현(管絃)에서 드러납니다. 공자는 소(韶)라는 음악을 듣고 순임금의 훌륭한 공덕을 알았습니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고, 선현이 의심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소리에 슬픔과 기쁨이 없다고 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하였다.
오랫동안 아무도 뜻을 풀고자 하지 않아 명실(名實)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천지의 기운이 합해져 만물이 생겨나며, 추위와 더위가 갈마들어 오행(五行)이 생겨나고, 또 오미(五味)와 오음(五音)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음이 생겨난 것은 천지 사이에 맛이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성음의 좋고 나쁨은 본래 스스로 그러함이니, 혼란한 세상을 만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사랑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음조가 바뀌고, 슬퍼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장단이 바뀌겠습니까? 오음의 질서와 성음의 조화는 인간의 마음이 진실로 원하고 인간의 감정이 향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옛사람들은 감정이 방종으로 흐르거나 욕심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 감정을 조절하여 슬퍼하더라도 몸을 상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고 즐거워도 음란함에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에 맞도록 이름을 부여하고 사물에 적절한 호칭을 붙입니다. 곡(哭)하는 소리를 슬픔이라 하고 노래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듯할지라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하여 반드시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하여 반드시 곡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대체로 지역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면 노래와 곡하는 소리도 달라집니다. 지역을 바꾸어서 들려주면, 곡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거나 노래를 듣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슬픔과 기쁨의 감정은 어느 곳이나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감정을 가슴에 품고서도 온갖 갈래의 소리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는 성음과 감정 사이에 일정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음의 조화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힘든 자는 노래를 통해 자기의 사정을 드러내고 즐거운 자는 춤을 통해 자신의 일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비통하면 애절한 말을 드러내고, 말을 늘어놓으면 시가 되고, 소리는 음악이 됩니다. 여럿이 모여서 읊조리고 함께 들어 보면 조화로운 소리에 마음이 감동하고 쓰라린 가사에 감정이 움직여 한없이 감탄하고 끝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슬픈 감정이 조화로운 소리를 만나 드러난 것입니다. ㉠ 조화로운 소리에 드러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슬픈 감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드러냄이 없는 조화의 소리로 인해 마음속의 슬픈 감정이 드러나고, 이때 느끼는 것은 오직 슬픔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현명하다 해서 사랑하고 저 사람을 어리석다 해서 미워한다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속하고 현명함과 어리석음은 그들에게 속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여 그를 사랑스런 사람이라 하거나 미워한다 하여 그를 미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음에는 좋고 나쁨이 있을 뿐, 기쁨이나 슬픔과는 무관합니다. 기쁨과 슬픔은 감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니, 명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 혜강, 혜강집(康集) -

9. 위 글에 나타난 말하기 전략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 ① ‘손님’은 다수에 호소하고 권위에 기대어 음악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② ‘주인’은 오음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맛의 존재에 빗대어 주장하고 있다.
- ③ ‘주인’은 음악에 대한 옛사람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주인’은 음악의 문제를 현명함과 사랑함의 관계에서 유추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주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대 논거로 지역에 따라 성음과 감정의 대응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10. ‘주인’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순임금은 시절(時節)에 맞는 음악을 연주하여 천하를 다스렸으나, 은나라 주왕은 시절에 맞지 않는 음악을 즐기다가 결국 자신도 죽고 나라도 망하였다.
- ② 상고 시대의 성왕이 음악을 제정할 때, 궁음은 성(聖), 상음은 의(義), 각음은 인(仁), 치음은 예(禮), 우음은 지(智)의 덕을 표현하게 하였다.
- ③ 안연이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묻자, 공자는 주나라의 복색(服色)을 사용하고 정나라의 음란한 음악을 금하라고 말하였다.
- ④ 신하가 음악에 관해 묻자, 황제(黃帝)는 좋은 음악은 천리를 따르고 자연의 질서에 맞으며 인간을 감동시킨다고 말하였다.
- ⑤ 만파식적(萬波息笛)을 연주하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으니 신라인들은 이 피리를 나라의 보물로 여겼다.

11. ‘주인’의 관점에서 ㉠의 의미를 바르게 진술한 것은?

- ① 감정이라는 ‘명(名)’에 적용되는 ‘실(實)’은 ‘좋음과 나쁨’이며, 마음은 조화로운 소리에 공명하여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드러낸다.
- ② 감정이라는 ‘명(名)’에 적용되는 ‘실(實)’은 ‘기쁨과 슬픔’이며, 마음은 조화로운 소리에 공명하여 자신의 ‘좋음과 나쁨’을 드러낸다.
- ③ 소리라는 ‘명(名)’에 적용되는 ‘실(實)’은 ‘좋음과 나쁨’이며, 마음은 조화로운 소리에 공명하지만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④ 소리라는 ‘명(名)’에 적용되는 ‘실(實)’은 ‘기쁨과 슬픔’이며, 조화로운 소리는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좋음과 나쁨’을 드러내게 한다.
- ⑤ 소리라는 ‘명(名)’에 적용되는 ‘실(實)’은 ‘좋음과 나쁨’이며, 조화로운 소리는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기쁨과 슬픔’을 드러내게 한다.

[13~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 사용했던 달력은 흔히 ‘음력’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해와 달의 운동을 모두 고려한 ‘태음태양력’이다. 태음태양력에서는 약 29.53 일인 삭망월을 한 달의 길이로 정하고, 해와 달이 한 줄로 늘어서 있어 달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매월 1 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큰달은 30 일, 작은달은 29 일이 되었으나 그 순서는 일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달의 운행만을 고려하면 계절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므로 해의 운행에 따른 24 절기를 별도로 정해 날짜와 함께 사용했다.

그렇지만 해와 달의 운동을 동시에 고려하면 그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해의 운행에 따른 일 년의 길이는 약 365.25 일이고, 달의 운행만을 고려한 일 년의 길이는 약 354.36 일(29.53×12 개월)이어서 11 일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윤달은 이런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느 달을 윤달로 정할까를 결정하기 위해 ‘무중치윤법(無中置閏法)’이 고안되었다. 무중치윤법에서는 해가 운행하는 궤도인 황도를 12 등분하여 각각에 24 절기를 순서대로 두 가지씩 배당하는데, 각 달의 전반부에 배당된 입춘, 경칩, 청명 등을 절기, 후반부에 배당된 우수, 춘분, 곡우 등을 중기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12 등분된 황도는 각각 태양력의 12 달에 해당하고, 매달의 길이는 약 30.44 일(365.25 일÷12 개월)이 되어 태음력에서 정한 한 달의 길이와 하루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가 누적되면 특정한 달에 중기가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를 무중월(無中月)이라 했다. 무중월에 윤달을 배치하는 방법이 바로 무중치윤법으로, 윤달은 대개 19 년에 7 번씩 들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전통 사회에서 달력에 관한 일은 천체의 운동을 관측하고 계산하는 분야였던 ‘역법(曆法)’에 속했으며, 역법은 천명(天命)을 받은 최고 통치자 곧 군주(君主)의 통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즉, 군주는 자신에게 명을 내려 준 하늘의 뜻을 천체의 운동을 통해 헤아리고자 했는데, 역법은 하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수단이자 상징이었다. 동시에 군주는 정확한 역법을 제정하여 달력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함으로써 천명을 실천하고자 했다. 나아가 군주는 더 좋은 역법, 다시 말해 하늘의 뜻에 더 잘 부합하는 역법을 만들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역법에서 해와 달의 운행뿐만 아니라 행성의 움직임까지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 역시 역법에 대한 동아시아인들의 이러한 독특한 관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날짜를 정하는 일은 태양력일 경우에는 해의 운행, 태음력일 경우에는 달의 운행에 대한 지식만이 필요할 뿐이다. 태음태양력일 경우에도 해와 달의 운행만을 고려하면 충분하며, 행성의 운행은 달력의 제작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인들은 일찍부터 행성의 운행에 주목했으며, 그 결과 늦게 잡아도 한(漢)나라 때부터는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모든 행성 곧 오행성의 운동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계산하는 일도 역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달력은 이러한 역법의 산물이었으므로, 날짜를 알려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 예컨대 태양력을 통해서는 황도 위에 있는 해의 위치만을 알 수 있는 데 비해, 동아시아의 달력을 통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날짜를 월일

(月日)이 아닌 연월일(年月日)로 표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때 해[年]를 표시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흔히 세성(歲星)이라고 불렀던 목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미 기원전부터 세성의 운행 주기가 약 12 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동아시아인들은 12 년을 주기로 하는 ‘세성기년법(歲星紀年法)’을 사용했는데, 이는 마치 12 등분으로 구획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아내는 것처럼 하늘에서 목성이 머무는 위치를 이용하여 해를 아는 방법이었다.

12.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아시아 달력에는 해와 달의 위치뿐 아니라 행성의 위치까지도 표시되었을 것이다.
- ② 태음태양력에는 일 년의 길이를 해의 운행 주기에 맞추려는 생각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 ③ 세성기년법을 사용했던 것은 오행성 중에서 목성이 한 해의 계절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 ④ 역법에서 행성의 움직임까지 중시한 까닭은 행성의 운동을 통해서도 하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 ⑤ 태양력에서 2 월 29 일과 같이 약 4 년마다 하루씩 윤일(閏日)을 설정했던 까닭은 달력을 해의 운행에 맞추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13. 무중치윤법에 고려된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삭망월	ㄴ. 해의 운행 속도
ㄷ. 24 절기의 황도 배당 방법	ㄹ. 해와 달의 상대적인 위치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4. 위 글에 제시된 역법에 관한 관념이 가장 잘 드러난 진술은?

- ① 하늘에 관한 일을 맡고 있는 이들이 임금의 명을 받아 하늘의 변화를 살펴 계절의 순서를 바르게 정하자, 이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 ② 오행성의 움직임은 서로 같지 않으며, 때로 거꾸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별이나 별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하늘의 날줄과 같고, 오행성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하늘의 씨줄과 같은 것이다.
- ③ 천운은 삼십 년이 되면 작게 변하고, 백 년이 되면 조금 크게 변하며, 오백 년이 되면 아주 크게 변하는데, 이와 같은 큰 변화를 세 번 거치면 자연의 변화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 ④ 해와 달과 오행성은 하늘에서 운행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북극성은 굳건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북극성이 밝은 빛을 잃는 것은 임금의 다스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⑤ 나라마다 대(臺)를 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에 올라 하늘의 변화를 관측하게 하였는데, 그 관측대의 모양이 위는 네모나고

아래는 동글었으니 이는 곧 하늘과 땅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
[16~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한국 전쟁 때 월남하여 부산으로 온 네 명의 동향(同鄉)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화차간을 거쳐 삼아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하지만, 광석이 사고로 죽고 셋만 남는다.

다시 세 사람의 생활이 시작됐다. ㉠ 광석이 있을 땐 그래도 더러 웃을 때가 있었으나 요샌 피차에 통히 웃을 일이라고는 없었다. 나는 가끔 혼자서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

“흘러가는 구름 저편…….”

㉡ 화차간이 찌렁하게 울렸다. 그것으로 나는 조금 기분이 풀렸다. 그러나 두찬이는 싫은가 보았다. 상을 잔뜩 찌그러뜨리고 나를 건너다보곤 했다. 그러면 나는 노래를 똑 그쳤다. 일 나갈 때가 되면 두찬이는 누운 채 화차 천장을 올려다보고 담배 한 대를 피웠다. 그러고는 나와 하원이를 깨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구.”

셋이 가지런히 일판으로 나갔다. 하원이는 노상 울먹거렸다. 내 허벅다리를 쿡쿡 찧었다. 둘만이 어서 다른 데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번번이 모르는 체했다.

일판에선 여전히 우리를 사춘끼리처럼이나 여겼다.

“사춘끼리랑요? 비슷하네.”

처음 우리 넷이 부두 앞에 나타났을 때 가지런히 훑어보며 지껄였듯 지금도 저희들끼리 키들거리며 지껄이곤 했다. 그러고는 북쪽 얘기를 하라고 자꾸 졸랐다. 두찬이는 해사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모로 젓기만 했다. 얘기할 줄 모른다는 뜻이리라. 풀이 죽은 낯색이었다. 일이 끝나면 셋이 가지런히 돌아왔다. 어두운 화차간. 내가 가운데 놓고 두찬이와 하원이가 양 가장자리에 누웠다. 하원이더러 가운데 누우라니까 두찬이 모르게 아얏 소리를 지를 만큼 내 허벅다리를 꼬집어 뜯었다.

어느새 봄이었다. 아침저녁으로 초량 뒷산 마루에는 제법 아른아른한 기운이 어리었다.

밤이 어지간히 늦었는데도 두찬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원이는 기쁜 듯이 지껄었다. 어느 때의 하원이 같지 않게 활발스럽기까지 했다.

“두찬이 형 아주 갔나 부다, 잉잉.”

“…….”

“야하!”

“…….”

“넌 왜 늘 아무 말도 안 현?”

“…….”

“벌써 여긴 봄이다 야. 이북은 아직도 굉장히 추울 끼다.”

“…….”

“……?”

되잖은 청으로 타령 같은 것을 부르는 두찬이의 취한 목소리가 또 가까워 왔다. 하원이는 흠칫 놀라 또 내 허벅다리를 조심스럽게 찧었다.

“문 열어라.”

드르르 문을 열었을 땐, 싸느다란 부두 불빛이 푸르무레하게 또 화차간에 찻다.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다. 문간에 막아서서 비 트적거리며 한참을 허허허 웃어 댔다.

“술 마셔, 술. 탁배기다 조오치! 안주? 여겼어, 있구말구, 안주 없어야 술이 있나, 암 있구말구, 허허, 이 새끼덜, 개구리들처럼 오그리구 누웠구나.”

나는 서슴지 않고 술병을 받아 들었다. 나팔을 불었다. 괜히 다급하게 서둘렀다.

“하…… 하원아…… 넌, 넌 안 마시니?”

“난 마실 줄 몰라요.”

“마실 줄 모르다니, 아직 술두 못 마셔? 자, 빨리.”

내 손에서 술병을 빼앗아 하원이 쪽으로 갔다.

“난 마실 줄 모른단데, 히힝.”

하원이는 또 울먹거렸다.

“놔요, 놔, 놓으란데. 내 손 쥐문 안 돼, 내 손 쥐문 안 돼.”

나는 당황해서 큰 소리로,

“하원아, 마셔, 마시라는데, 어서.”

“흐흐…… 응, 마실게, 흐흐흐…….”

한참 동안 조용했다. 별안간 두찬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두찬이 우는 김에 하원이의 쿡쩍거림이 똑 그쳤다.

(중략)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두 일판에 나가도 없었다.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차간 속에서 하원이는 지껄었다.

“야하, 우리 이젠 꼽대加里* 자꾸 해서 돈 좀 취자. 그러구 저기 ㉢ 염주동 산꼭대기에다 집 하나 짓자. 거기 집 지어두 일 없닝기더러야. 잉야 조카야, 흐흐흐 우습다. 진짜 우스워. 난 너두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떨언 줄 안. 광석이 아제비두 맘은 좋은 쪽은 못 됐시아, 잉. 우린 동네 갈 져 꼭 같이 가자. 돈 벌어서, 돈 벌문 말야, 시계부터 사자, 어부러서. 그까준 거, 꼽대加里 대구 하지 머. 광석이 아저씨와 두찬이 형은 못 봤다구 글자마, 알 거이 머야, 너와 나만 암말두 안 현 담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구만 글자마. 널부터 나 진짜 꼽대加里 할란다. 잉, 조카야 우습다. 잉? 이케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탤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 돌개바람 같은 것을…….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이는 흐흐흐 웃었다. 지껄었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한. 참 부산은 ㉤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북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제비네 우물 말이다. 야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집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 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마이 보문, 언제나 새벽에 젤 먼저 물 푸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야하, 눈 보구 싶다, 눈이.”

* 곱대가리 : 밤낮을 거꾸 일하는 것.

- 이호철, 탈향 -

15.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하원’에 비해 고향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다.
- ② ‘하원’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서 ‘두찬’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는 ‘하원’에 대해 현실과 의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 ④ ‘하원’은 ‘두찬’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다.
- ⑤ ‘두찬’은 ‘나’와 ‘하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의식하고 있다.

16. 위 글의 ㉠~㉣과 <보기> 시의 ㉠~㉣를 연결할 때,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우리 청산포 사람들, / 창경원의 벚꽃이 함빱 구름처럼 피는 날 / ㉠
 명함을 박지 못한 놈들만 구석지에 모여 / 언제나 기가 꺾였다. /
 저희들끼리 키득거리고 술잔을 얹었다. / ㉡ 가설무대에서 마이크가
 울고 / 삼류 가수보다 못한 굳세어라 금순이가 울고 / 흥남 부두에
 눈발이 쳤다. /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적고 번지수를 건네받다 보면 /
 새로 끼인 얼굴도 한둘, / 산 속의 ㉢ 땡땡이넝쿨처럼 모진 인연들만
 얹히고설켰다. / 이갓돈에 차용증 재판 건이 나오고 / 저희들끼리
 치고받았다. //

(중략)

아, 결국은 조금씩 취해서 돌아오는 길 / 못한 놈들만 고향 냄새를
 풀어 놓고 돌아오는 밤길 / 해마다 이맘때면 ㉣ 구로 공단 막바지
 언덕길엔 / 하늘 높이 둥근 달이 떠서 / 내 고향 성천강 ㉤ 물소리만
 귀에 부서졌다.

- 송수권, 면민회(面民會)의 날 -

- ① ㉠ 광석이 ————— ㉡ 명함을 박지 못한 놈
- ② ㉢ 화차간 ————— ㉢ 가설무대
- ③ ㉣ 염주동 산꼭대기----- ㉣ 구로 공단 막바지 언덕길
- ④ ㉤ 돌개바람 ————— ㉤ 땡땡이넝쿨
- ⑤ ㉥ 눈 ————— ㉥ 물소리

1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들은 귀향을 가로막는 사회 현실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 ② ‘봄’으로의 계절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술’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④ 고향은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반목을 치유할 현실적인 대안을 상징한다.
- ⑤ 실향민의 문제를 실존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분단의 문제를 인류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19~2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현대 진화생물학의 두 가지 입장을 기술한 글이다.

(가) 진화생물학이 설명해야 하는 중심 문제는 생물 개체의 적응에 관한 것이다. 적응은 자연선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은 진화생물학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자연선택은 근본적으로 복제자에 작용한다. 복제자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구조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복제자는 유전자가 유일하다. 유전자들은 동맹을 결성하여 자신의 운반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운반자를 통해 생존 경쟁을 한다. 운반자는 유전자들의 번식을 돕는 매개체로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생물 개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유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운반자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복제를 도모한다. 성적 매력, 신진대사의 효율성 등과 같은 운반자의 적응적 형질을 강화시키는 유전자는 다른 경쟁 유전자보다 더 자주 복제될 것이다. ㉠ 어떤 유전자는 운반자를 둘러싼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환경을 조종하거나 통제하여 자신의 복제 기회를 넓히기도 한다. 심지어 운반자의 적응도를 감소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른바 ‘무법 유전자’도 있다. 유전자는 이렇듯 다양한 전략의 중심에 있으며, 이는 자연선택이 근본적으로 운반자가 아닌 복제자에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진화는 장구한 세월 동안 자연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된 소(小)진화적 사건의 끊임없는 축적이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생명 체계가 형성되었다. 예외적으로,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진화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동물 계통은 신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동물 계통에 비해 진화에 의한 변화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계통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이러한 ‘진화 가능성’ 자체가 때로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선택은 유전자보다 상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나) 진화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대멸종’일 것이다. 대멸종은 진화 계통수(系統樹)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페름기 말에는 당시 종의 90% 이상이 사라졌다고 추정된다. 공룡의 멸종은 백악기의 소행성 충돌의 결과였으며, 이는 포유류가 지배적인 종이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종의 생성 역시 점진적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종은 부모 종의 분포 지역 주변부에 위치한 소규모의 고립된 개체군들 중에서 급속한 종 분화를 통해 생성되며, 이후 새로운 종 분화나 멸종이 일어나기까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개체군에 발생하는 변화는 축적되지 않고 평균치에서 진동할 뿐이며, 대규모 개체군은 근본적으로 정체적(停滯的) 성격을 지닌다. 화석 기록은 이러한 단속 평형적인 진화의 양상과 잘 부합된다.

화석 기록은 또한 캄브리아기에 주요 동물 분류군이 한꺼번에 출현했음을 보여 준다. 5억 3천만 년 전의 화석 기록이 보여 주듯이, 캄브리아기 이후 생명계는 종의 차원에서는 다양해졌지만, ‘문(phylum)’의 차원 즉 신체적 기본 구조의 종류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종 다양성은 증가했지만 이질성은 감소한 것이다. 이

역시 진화생물학이 설명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진화의 다양한 양상을 자연선택에 의한 소진화의 점진

적 축적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물론 자연선택은 중요하며 진화생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선택은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진화의 큰 틀에서는 급속한 종 분화, 종의 안정성, 멸종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연선택이 개별 유전자에 작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가 아니라 개체이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선택이 다른 수준에서 작용하기도 한다. ㉡ 여러 종들로 구성된 한 계통에서 어떤 종은 멸종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종 분화를 더 쉽게 만드는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개체 수준이 아닌 종 수준에서 나타나며 종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자연선택이 진화의 기제임을 인정한다.
- ② (가)는 종의 생성 원리에, (나)는 종의 소멸 원인에 주목한다.
- ③ (가)는 유전자를, (나)는 개체를 자연선택의 기본 단위로 본다.
- ④ (가)는 진화 과정이 연속적이라고 보는 반면, (나)는 불연속적이라고 본다.
- ⑤ 인접 종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면, (가)의 입장은 강화되고 (나)의 입장은 약화된다.

19.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 뇌충은 개미의 뇌 속에 침투한다. 이후 뇌충의 유전자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 개미로 하여금 풀잎 위에서 쉬도록 개미의 행동을 변화시켜 소에게 먹히도록 만든다. 뇌충의 궁극적 숙주는 소다.
- ㉡. 아프리카인의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다. 이 돌연변이 유전자들끼리 쌍을 이루면 악성 빈혈이 유발되지만, 정상 유전자와 쌍을 이루면 치명적인 말라리아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된다.
- ㉢. 수컷을 결정하는 Y 염색체 상의 어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X 염색체를 가진 정자보다 운동성이 더 커졌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정자가 더 많이 수정되어 수컷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성비의 균형이 깨져 짝짓기가 힘들게 되었다.

① ㄱ-----② ㄴ-----③ ㄷ-----④ ㄱ, ㄴ-----⑤ ㄴ, ㄷ

20. ㉠과 부합하는 진술은?

- ① 지질학적 격변과 같이 급격한 생태 조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개체군은 그렇지 못한 개체군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다.
- ② 개체들은 성공적 번식을 위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데, 이때 개체들은 성(性)에 따라서 선택에 유리한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 사이에 형태학적인 차이가 생기게 된다.
- ③ 사회적 동물군에서 친족을 위한 이타성은 자연선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타적 개체 자신은 희생될지라도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가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어떤 새의 부리 형태는 건기와 우기에 따라 정반대의 선택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긴 시간 단위로 보면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므로 부리 형태의 차이는 누적되지 못하여 종 변화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 ⑤ 공격성, 영역 구분, 사회 체계 등과 같은 동물의 사회적 행동들은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것으로, 이는 인간 종에 고유한 사회·문화적 행동들도 유전적·진화론적 틀에서 설명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2~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서기 (중략) 솔매 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문둥이 집이 한 채 있고 생배로 넘어가는 삼거리 채 못 가서, 거위를 기른다고 거위집이라고 하는디, 한씨여, 사람은 생불이구만, 안사람이 간질이 심해 갖고, 그래 남 뵈기 사납다고 외채로 지낸 것이 이십 년이 돼 가지, 아마. 집 뒤로 뭘 좀 심어 보겠다고, 그래 개간 허가 내는 일 좀 거들어 줘구만, 내가 토지를 어디서 떠다 준 줄 아는 모양이여, 나 보고 절하는 것이 이 사람 일과여. 저 보소. 야밤인디 목 빼물고 섰어.

탱자 울타리 너머로 상체를 내놓고 서 있던 한씨가 울타리를 돌아 나온다. 도시락만 한 꾸러미를 들었다. 그것을 윤서기의 자전거 뒤판에 묶는다.

윤서기 뭐라우.

한 씨 더덕 좀 캐 봤구만. 잘아서 젓상엔 오르지도 못하겠네.

윤서기 어허, 뇌물 받았다고 나 쫓겨나.

한 씨 (소매 끝에 접어 두었던 쪽지 꺼낸다.) 아께 집 애들이 읽어서 주드만, 세상에 엄두가 나야지.

소녀소리 날씨 맑음. 감자 두 개 썰어 지영이 공작 숙제 만들어 줬다. 오후반 애들이 지나갔다. 읍내 쪽에서 기적 소리가 들려온다. 올라가는 기차 - 내려가는 기차? 나는 어느 기차를 타게 되나. 모른다.

한 씨 두째여. 열네 살 먹은 것인디.

윤서기 언제 나갔다.

한 씨 점심 지나구서 안 보드레. 지 말대로 찰 탔으면 대처로 나간 모양이구먼. 세상에 이것이, 이것이 뭘 변이여.

윤서기 대처에 누가 있나.

한 씨 누가 있어, 읍내 장이도 한 번 안 가 본 애여.

윤서기 이거 큰애가 줘디여? 뭘 말 없고?

한 씨 질질 짜기만 허지.

윤서기 내가 좀 보드라고.

한 씨 (담 너머로) 야어, 거깃냐. (울안으로 들어간다.)

갑자기 거위 우는 소리 울안에서 한참 소란하다. 거위를 모느라고 두런거리던 한씨 소리와 함께 뒤꼍으로 멀어져 가자 스무 살 넘어 보이는 처녀가 나온다. 궁색한 차림새보다 얼굴을 돌리거나 숙이지 않는 거동이 먼저 눈에 띈다. 처녀의 말은 때로 윤서기를 개의치 않고 하는 혼잣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처 녀 (잠시) 동생은 지가 내보냈시유.

윤서기 내보내다니.

처 녀 작년에 갓난애가 들어왔구만유, 앞집에서.

윤서기 앞집 문둥이한테서?

처 녀 그 애가 막내 동생으로 입적되는 걸 보고, 동생이 여간 아니게 놀랐던 모양이라우. 지난달에, 하루는 자기도 앞집이서 왔냐고 내게 묻더만유.

윤서기 앞집에서 온 애가 또 있나?

처 녀 (잠시, 끄덕인다.) 머스매, 올해 학교 들어갔구만유. 머스매 입적할 때 동생이 어렸은게 몰랐지유. 입적이 뭔지.

윤서기 어쨌나……. 저도 앞집에서 온 애로 여기는 눈치던가?

처 녀 앞집이 여기서 보기보다 솔찬히 멀어라우. 그런데, 뭐가 그 집 문밖에 힐끔 비치기만 해도 애가 사시나무 떨듯 하느디, 영낙 엄니 간질하듯 그래라우. 밤에 자다 보면 내 얼굴을 자꾸 더듬어라우. 지 얼굴 만져 보고. 나 노력볼 때 보문 무서워서 — (흠칫 몸을 떤다.) 내가 무서워서 내쫓았구만요. 그 애도 그렇게는 못 살 것이고, 못 살아라우.

윤서기 내쫓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 가라고 내쫓아. 앞집에 가라고?

처 녀 (흠칫 놀란다. 상체를 쏘아 잡고 쪼그려 앉는다. 사례가 걸린 듯 몇 번 헛구역질을 한다.) 야가 앞집에 갔을라나……. 한번은 거위 목을 비틀고 있어라우. 꿈에 앞집이서 즈이 엄니가 왔느디, 거위가 손가락을 문게 쑥 빠지더래요. 그거 내노라고, 엄니 갖다 준다고, 거위 목 잡고.

윤서기 그 애도 앞집서 들어왔나?

처 녀 그 애가 나 여섯 살 때 생겼구만유. 모르겠어라우. (문득 뺨히 본다.) 개도 데려왔다우?

윤서기 내가 물어본 게.

처 녀 내가유, 꿈에 저 집 불 질렀어라우. 꿈에.

윤서기 애가 정신이 있나, 지금.

처 녀 빨래를 널 수 없어라우. 그것이 바람에 날려도 앞집 사람들 본 것 모양 속이 울렁거려서. 불 때다 삭정이만 부러져도 손가락 세어 본다우, 손가락 분질러 땀 줄 알고. 지가 이럴 바에 그 어린 것이 오죽이나 죽었을 것이요, 불쌍한 것이. 내 저 죽으라고 내쫓은 것 아니라우. 저라도 살라고, 멀리 가라고, 엄니고 언니고 다 잊으라고.

윤서기 낫살이 그만하면 세상 물정 알 것이구만, 그 어린 것이 어찌 살 것이라고 내쫓아. 한디서 밥이나 빌어먹을 줄 아냐. 밥도 못 먹어.

처 녀 지 팔자가 그런게요.

윤서기 ㉠ 이 사람 말하는 거 좀 보소. 자네 아버지는 뭘 받고 애들 말아 기르는가.

처 녀 (분해서 몸을 떤다.) 집 나간 애는 그런 소리 안 했어라우. 애 업어 채우고 씻기고, 지 동생들 꼼찍히 알았어라우. 그저 무섭다고, 무섭 타다 나간 것이라우. 무서서.

몸을 돌려 들어간다. 거위 우는 소리 두세 번 치솟고 잠잠해진다. 적막.

- 오태석, 자전거 -

21. 등장인물의 대사가 모두 참이라는 가정하에, <보기>의 사건을 과거부터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
ㄱ. '한씨'가 앞집의 '갓난애'를 입적한다.
ㄴ. '한씨'가 앞집의 '머스매'를 입적한다.
ㄷ. '처녀'의 '동생'이 거위의 목을 비튼다.
ㄹ. '윤서기'가 '처녀'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는다.

- ① ㄱ-ㄴ-ㄷ-ㄹ
- ② ㄴ-ㄱ-ㄷ-ㄹ
- ③ ㄴ-ㄷ-ㄱ-ㄹ
- ④ ㄹ-ㄱ-ㄴ-ㄷ
- ⑤ ㄹ-ㄴ-ㄱ-ㄷ

22. ㉠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말이 씨가 된다고, 기어이 일이 그리 될 줄 알았다.
- ② 말 많은 집 장맛도 쓰다더니, 너희 집 인심도 참 고약하구나.
- ③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무슨 말버릇이 그 모양이냐?
- ④ 말로는 못할 말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야 되겠냐?
- ⑤ 군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는 법이라고, 쓸데없는 말을 자꾸 늘어놓지 마라.

23. 위 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위 우는 소리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환기하는 동시에 미묘한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거위 목을 비트는 '동생'의 행동에는 그녀가 자신을 '엄니'의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가 깔려 있다.
- ③ '처녀'가 말하는 꿈 자체를 독자로 하여금 불신하게 함으로써,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에 비판적 거리가 형성된다.
- ④ 등장인물들은 에둘러 말하거나 혼잣소리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 방식을 통해 생활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재현된다.
- ⑤ '문둥병'은 질병 그 자체의 실상보다는 훨씬 과장되게 일반인에게 인식되기 쉬운데, 이 작품에서도 공포와 죄의식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25~2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이 실현해야 할 가치를 법이념이라 한다. 법이념은 실정법 위에 있는 하나의 지도 원리이며,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평가 원리이다. 법이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지침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같은 것 또는 다른 것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는 말하지 않고, 취급의 비례를 지시할 뿐,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공동생활의 질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하나의 질서이어야 한다. 법을 통한 사회 질서의 확보, 즉 법적 평화는 인간 사회의 존속 요건이며 법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이리하여 정의와는 다른 법이념이 요구되는데,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 한다. 법적 평화는 확고한 법질서를 전제하고, 이는 법의 실정성(實定性)을 요구한다. 실정성은 사회적 사실이고, 실정법은 그것을 제정하는 힘을 전제한다. 무엇이 정의인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은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실정법의 정당성은 그것에 의하여 달성되는 '안정성'에, 서로 다투는 법적 견해들 사이에서 그것이 이루는 '평화'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키는 '질서'에 근거한다.

법이념들의 요청은 서로 보충적이고 협력적이지만, 때로는 긴장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나아가 어떤 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 안정성의 요청 때문에 실정법은 그것의 내용이 정의로운가에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계속성을 요구하지만, 정의는 변화된 사회관계에 법이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법의 실정성이 항상 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의 변화도 적응의 필요가 계속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것이다. 혁명 정부의 법과 같이 종래의 실정법을 희생시켜 사실상 시행된 법이 법적 안정성의 고려에서 현행법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관되고 안정된 상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오히려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법적 견해의 다툼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결론이 참으로 정의로운지의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법보다 낫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의 일차적 과제는 법적 안정성, 즉 평화와 질서이다. 법관은 법의 효력을 실현시키고, 법의 명령에 자신의 법 감정을 희생시켜야 한다. 법관의 직무는 다만 무엇이 법인지 물을 일이지 결코 그것이 정당한가 묻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법관과 정의롭지 않은 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이 대립할 수 있다. 이것은 비극적인 상황이다. 양심의 의무는 한 인간에게 범죄를 요구했다. 법은 법관에게 형벌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법은 양심에 따른 범죄 때문에 과해질 형벌을 받아들이 의무까지 요구할 것이다. 오판(誤判)의 집행을 면(免)하라는 권유를 거절하였던 소크라테스는 법의 깨뜨릴 수 없는 성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한 나라에서 일단 내려진 판결이 아무런 효력도 거두지 못하고, 한 개인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파괴될 경우, 그런 나라가 쓰러지거나 전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4. 위 글에 쓰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질서와 법은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 ② 법의 효력은 법적 평화의 전제가 되는 개념이다.
- ③ 정의와 법적 안정성은 동등한 수준의 개념이다.
- ④ 실정성은 법적 안정성의 하위 개념이다.
- ⑤ 법이념은 정의의 상위 개념이다.

25. 법이념들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법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법관은, 초범이고 반성의 빛이 뚜렷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갑을 집행 유예로 석방하였다.
- ②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취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 신규 공무원의 일정 비율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임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였다.
- ③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동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사면하였다.
- ④ 갑은 15년 전에 을에게 1년 기한으로 빌려 준 백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을은 15년 동안 갑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했다. 갑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을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하였다.
- ⑤ 도로에서 자동차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통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좌측통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와 같이 변경하려 하였으나 사회 혼란의 우려 때문에 그대로 우측통행 제도를 유지하였다.

26. 글쓴이의 견해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법이념의 여러 측면은 등가적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긴장이 있을 경우 개인의 양심 이외에 다른 해결 기준을 찾기 어렵다.
- ② 흠 없고 정당한 하나의 법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이러한 법은 실정법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 ③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못한 곳, 실정법의 제정에서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의식적으로 부정된 곳에서의 법이란 아예 법적 성격이 없는 것이다.
- ④ 실정성과 법적 안정성은 법에서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정의가 보장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조건에 의해 법적 평화가 바로 실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 ⑤ 법관은 직무상 어떠한 경우에도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법관은 일반 조항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 자신의 법 감정을 끌어들여 판결하기도 한다.

[28~3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 역사학계에서 일상사(日常史) 연구는 사회사(社會史)에 대한 비판으로 1970년대 말에 등장하였다. ㉠ 위르겐 코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사 연구는 근대화 이론과 비판 이론을 바탕으로 민족 국가, 산업화, 계급 사회 등 거대 담론을 도입하여 근대 사회의 구조와 과정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일상사가들은 근대화가 초래한 희생과 부담에 주목하여 익명의 구조와 과정보다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경험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들은 역사의 주체와 해방자로서 서민들의 생활과 행동 양식에 대한 연구를 주창했다. 그 후 일상사 연구는 점차 그 연구 대상과 관점을 다양화하며 풍부한 연구 영역을 개척해 왔다.

오늘날 일상사적 역사 이해 및 서술과 관련하여 ‘종속’의 관점과 ‘자율’의 관점이라는 두 관점이 있다. ㉡ 카린 하우젠은 사례 연구를 통해 근대 이래 대중들의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구조에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1960년 무렵 대도시 근교의 고층 건물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복잡한 기술적 시설과 장치들의 정상적 작동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은 복잡한 집합체 안에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형성하며 해석한다. 본질적인, 어쩌면 실제로 결정적인 조치는 ㉢ ‘등 뒤’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체주의적 지배가 대중의 일상을 철저히 종속시켰던 나치 시대에 관한 여러 일상사가들의 연구 결과도 하우젠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철저한 조직화와 빈틈없는 통제, 게르만 종족 공동체 이상과 반(反)유대주의의 결합, 그리고 이미지를 통한 대중 동원은 ‘사생활(私生活)의 정치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은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했던 폴란드 지역에서 전개된 유대인 학살의 일상을 치밀하게 추적한 결과, 이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다. 학살 작전에 관련되었던 관료 조직, 방위군, 나치 친위대와 평범한 독일인들로 구성된 경찰 특수 기동대 등이 보인 참여도와 동기는 기관뿐 아니라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도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들은 ‘몰살 정책’을 언제나 충실히 따른 것도 아니었으며, 잦은 과잉 학살에서 보듯이 ‘합리적인’ 세부 지침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조차 있었다. 여러 일상사 연구에 의해 밝혀진 자발적 밀고, 폭력에 대한 방관, 혹은 노골적 약탈과 같이 통제되지 않은 폭력 등 많은 평범한 독일인들이 나치 체제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한 사실 또한 브라우닝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함의를 지닌다. 게다가 어떠한 저항 행위도 용납되지 않았던 극단적 폭압 체제에서도 대중들의 일탈적 행위, 정치에 대한 무관심, 사적 영역에의 몰입, 노골적 불복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 행위들은 발견되었다. ㉤ 데틀레프 포이케르트는 이러한 현상들을 ‘**정치의 사생활화**’로 명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 나타나는 종속 구조와 자율 행동 사이의 경계는 그리 명료하지 않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구조와

일상적 실천을 명확하게 가르는 인습적인 양분법은 문제를 드러내고 만든다. ‘사생활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생활화’는 동시적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 반 라크가 예시했듯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행위들은 체제와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때로는 스스로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일상사 연구는 이러한 역관계(力關係)의 동시성과 긴장을 읽어냄으로써 근대 사회 구조와 지배의 성격을 새롭게 해명하려는 기획이기도 하다. 나아가 구조와 지배의 틀 속에서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된 주체를 해체함으로써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역사화하고, 이를 통해 거대 역사 담론에 의해 짓눌리고 가려진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와 가능성을 가시화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동시대인과 행위자 자신은 물론, 훗날 자취와 흔적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일상성 속의 다양한 층위와 복합성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행위자가 구조에 동조하거나 따를 때에도, 반대로 억압되거나 강제될 때에도, 그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미세한 차이를 표현하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는 일상에 나타나는 구체적 행위를 묘사하는 언어들이 암시하는 것보다 언제나 커 보인다. 일상성에 관한 논의 결과는 ‘주어진 것’과 ‘스스로 만든 것’의 배합 비율에 기술적으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일상사 서술의 풍부한 가능성이 있다.

27.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사회사는 일상 세계의 심층 구조를 해체한 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 ② 소시민의 일상 세계는 다층적 일상성의 유형을 법칙화함으로써 역사화된다.
- ③ 근대 국가 권력이 일상 세계의 미세한 영역에까지 미쳐서 자율 영역은 점차 사라진다.
- ④ 소외되었던 서민들의 일상을 계층적으로 역사화하면 근대 사회 구조가 새롭게 규명된다.
- ⑤ 일상의 세밀한 묘사를 통해 거대 담론이 왜곡한 노동자들의 다중적 정체성이 회복된다.

28. ㉠ '등 뒤'의 함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감지할 수 없는 구속성
- ② 검증할 수 없는 인과성
- ③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
- ④ 저항할 수 없는 절대성
- ⑤ 회피할 수 없는 숙명성

29. '사생활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생활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생활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생활화'의 집적을 통해 실현된다.
- ② '사생활의 정치화'는 체제 비판적이고, '정치의 사생활화'는 체제 순응적이다.
- ③ '사생활의 정치화'란 개개인이 자신의 일상 영역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④ '정치의 사생활화'란 일상 행위 일반에서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을 이른다.
- ⑤ '사생활의 정치화'를 통해 일상 세계의 전면적인 식민화가 이루어진다.

30. 나치 시대에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 ㉠~㉤이 제시한 해석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코카: 나치 시대 말기, 군수 공장에서 나타난 근무 태만과 불량품 증가는 노동자의 도덕관념이 해이해진 데에서 비롯하였다.
- ② ㉡ 하우젠: 유대인 '몰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과잉 학살 사례들은 '합리적' 집행 계획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 ③ ㉢ 브라우닝: 민간인의 폭력이 통제되지 않고 증가한 것은 나치 체제의 결함 때문이었다.
- ④ ㉣ 포이케르트: 지하 서클, 재즈 클럽과 같은 청소년 하위문화는 나치 체제에 대한 저항의 한 표현이었다.
- ⑤ ㉤ 라크: 평범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 가한 잔학 행위는 전체주의 지배 구조가 조장한 반유대주의의 결과였다.

① ג, ל-----② ג, ט-----③ ג, ז
④ ל, ז-----⑤ ט, ז



[35~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대부분의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무역을 존중하며 자랐다. 자유 무역을 옹호했던 19세기 사람들은 국제 분업이 자원과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나아가 자유 무역이 특권과 독점에 맞서는 진취적 정신을 북돋우며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다고 믿었다. 지금도 자유 무역이 여러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자유 무역을 바라보는 내 관점은 적지 않게 달라졌다. 이제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극대화하자는 편보다는 극소화하자는 편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 사상·지식·예술·친절·여행은 본성상 국제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재는 가능한 한 국산품이 바람직하며, 특히 금융은 국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이처럼 방향을 선회한 것은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따라서 사고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 무역에 대한 판단 자체가 경제적 이익과 비경제적 이익 사이의 저울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19세기에는 경제적 국제주의의 경제적 이익이 다른 종류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먼저, 대규모의 이민과 함께 구대륙의 기술과 저축도 신대륙으로 함께 건너갔다. 영국의 저축과 기술로 건설된 철로와 기차가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을 미국 곳곳으로 실어 날랐다.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영국으로 환류되었고, 검약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성공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시카고의 투기자가 독일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점이 거의 없다. 둘째로, 국가들 사이에 산업화의 수준과 기술 습득의 기회가 현저하게 달랐던 때는 국제 분업의 고도화가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국제 분업의 경제적 이익이 오늘날에도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천연 자원, 문화 수준, 인구 밀도, 타고난 기질 등이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면, 어느 정도의 국제적 특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농산물과 공산품의 경우에는 자급자족의 경제적 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단일한 국가적·경제적·금융적 조직에 속하게 함으로써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최신의 대량 생산 공정은 거의 같은 효율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富)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경제 속에서 원자재와 공산품은 개인 서비스, 쾌적한 주거 환경, 문화 공간 등 교역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을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 자립도의 증대에 따른 원자재 및 공산품의 실질 비용 상승은 다른 종류의 이익들에 견주어 보면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 자족적 국민 경제는, 비용은 들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호사(豪奢)가 된 것이다.

자족적 국민 경제는 그 자체가 이상(理想)이 아니라 다른 이상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다. 경제적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중앙 통제보다는 가능한 한 사적인 판단과 사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가 즐겨 상상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전환하려면, 현재와 같은 민간 기업의 구조에서는 적어도 향후 한 세대 동안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국제 금융 시장의 작동을 통해 단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경제적 국제주의가 가져다 줄 물질적 번영은 새로운 이상 사회의 그것에 크게 못 미칠 것이다. 물론 사적 수익성의 논리로 보자면, 국경을 뛰어넘

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곳에 자신의 저축이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확대되면, '자본 탈출'의 위협으로 인해 적절한 국내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적 수익성 그 자체마저 망쳐 놓는 긴장과 반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우리의 실험을 행하자면, 다른 곳의 경제적 변화로부터 가능한 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수익성이라는 기준에 복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그 기준을 바꿔야 할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이다. 버려야 할 것은 재무장관을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처럼 보는 통념인 것이다.

- J. M. 케인스, 자족적 국민 경제 -

34. 글쓴이가 주목한 시대적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기술 혁신으로 공산품의 국가 간 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었다.
- ② 기업의 자금 조달이 국내외 주식 시장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 ③ 금융 이동 규모의 증대에 따라 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제약받게 되었다.
- ④ 원자재의 실질 비용 상승이 주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 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이자율 격차가 심화되었다.

35. ㉠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자족적 국민 경제는 사회적 가치들이 제고되는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 ② 비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국민 경제의 성장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 ③ 기업에 의한 자원 배분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은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④ 공공 정책에 필요한 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규제하고,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이동은 확대해야 한다.
- ⑤ 자족적 국민 경제가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건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통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36. 위 글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은 이자율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 경제를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킬 것이다.
- ② 금리를 크게 낮추는 정책은 부동산 투기, 주가 거품 등을 유발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도 훼손할 것이다.
- ③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분 하에 금융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는 물론, 정치적 자유마저 억압할 우려가 크다.
- ④ 외국의 선진적 금융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유입될 뿐 아니라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내외적 긴장과 반목도 완화될 수 있다.
- ⑤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그 크기를 재는 것 또한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적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38~4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톨의 밀알이 곡식 더미를 이루는가? 아니다. 두 톨이면? 역시 아니다. 세 톨은? 그렇다면 만 톨은? 밀알이 충분히 많이 쌓이면 곡식 더미를 이룬다. 하지만 한 톨만으로 더미가 안 된다면, 거기에 한 톨 더 보탠다 한들 여전히 더미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식이라면 만 톨이라도 더미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는 기원전 4 세기 에우블리데스가 고안했다고 전하는 ‘더미의 역설(paradox of heap)’이다. 이러한 연쇄 논법 퍼즐은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역사적으로는 헬레니즘 시대에 회의론자들이 스토아학파의 독단적 인식론을 공격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감각 인상이 대상과 일치한다고 우리가 동의할 때 지식이 성립한다. 이때 분명한 감각 인상은 동의를 강력히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불분명한 감각 인상은 그리 강력하지 않다. 범인(凡人)들은 불분명한 인상에도 동의하면서 억측에 빠지는 반면, 인상의 분별을 단련해 온 현자(賢者)는 분명한 인상에만 동의하면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더미의 역설’처럼 각각의 인상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흡사한 인상으로 점차 대치하면서, 분명한 인상에서 불분명한 인상으로 나아가는 연쇄 고리를 구성해 스토아학파를 공략하였다.

모든 명제는 참이 아니면 거짓이어야 한다는 배중률(排中律)을 스토아학파는 철저히 적용했다. 따라서 “n은 적은가?”, “n+1은 적은가?”라는 연쇄 형식의 질문에 대해, 스토아학파의 답은 “예.”가 일정 횟수 계속된 다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아니요.”가 계속되어야 한다. 만일 “n은 적은가?”의 답이 “예.”이고 “n+1은 적은가?”의 답이 “아니요.”라면, 바로 그 n이 적은지, 적지 않은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스토아학파는 그런 기준점이 있으며,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현자도 정확한 기준점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토아 학도들은 아는 것만 진술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한다. 그러니 “모른다.”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앎 곧 지식은 ‘분명한 것에 대한 동의’를 통해 성립하므로, 인식된 것은 분명하며 분명한 것 또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모른다’는 답은 ‘불분명하다’와 다름없는데,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이는 다시 ‘n이 적은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나 쓸 수 있는 답이다. 그러나 ‘적음’의 뚜렷한 기준점이 있다 해도, n이 적다는 분명한 인상과 n+1이 적다는 불분명한 인상이 너무 흡사할 때에는 “불분명하다.”라는 대답조차 하기가 곤란해진다.

분별력은 단련으로 향상되지만 완벽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숙련된 현자라도 때로 실수를 예방하고자 분명한 인상에도 동의를 삼간다. 그렇다고 그것을 항상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가는 때로 실수할 테니까, 현자는 “불분명하다.”라는 말도 안 하고 침묵에 빠진다. 스토아학파의 제 3대 수장 크리시포스는 낭떠러지에 다다르기 전에 말을 잡아당기는 똑똑한 마차꾼에 자신을 비유하며, 분명한 경우들의 끝에 이르기 전부터 침묵하라고 충고했다고 전해 온다. 이는 ‘예’가 답이 아닌데 “예.”라 하는 것보다 ‘예’가 답이더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니, 말하자면 지나침보다는 미치지 못함을 택하라는 정책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가 침묵할 때인가? 회의론자라면 의문이 생길 때마다 판단을 중지하면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의문이 가실 리는 없겠지만,

크리시포스의 경우엔 분명한지 불분명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침묵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언제가 그런 경우인지 때로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분별 가능한지를 분별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침묵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소급하다 보면 미치지 못함이 지나침보다 더 낫다 할 것도 없어 보인다.

37.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 ① ‘적음’과 ‘적지 않음’은 기준점이 같다.
- ② ‘적음’을 알 수 없으면 ‘적음’은 불분명하다.
- ③ ‘적음이 분명함’과 ‘적음이 불분명함’을 가르는 기준이 있다.
- ④ ‘n이 적음’이 불분명할수록 ‘n+1이 적지 않음’이 분명해진다.
- ⑤ ‘분명함’과 ‘불분명함’의 기준 문제는 기준 자체가 분명한지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38. ‘더미의 역설’과 같은 형식의 역설이 나타나는 것은?

- ① 우공이라는 노인이 산을 옮기고자 하니 이웃에서 비웃었다. 이에 우공은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그 다음엔 손자가, 이렇게 대대로 하다 보면 마침내 다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 ② 그의 뜻이 어머니의 뜻이요, 어머니의 뜻이 테미스토클레스의 뜻이며, 테미스토클레스의 뜻이 아테네인들의 뜻이니, 그의 뜻이 아테네인들의 뜻이 아니라고 부인할 길이 없었다.
- ③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를 기리는 뜻에서 그의 목선을 영구 보존하고자 썩은 판자가 생길 때마다 새 판자로 갈아주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배가 과연 테세우스의 배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있었다.
- ④ 굶주린 당나귀가 먹이를 찾았다. 공교롭게도 먹이는 좌우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똑같이 나뉘어 있었다. 왼쪽부터 먹자니 오른쪽 것을 나중에 먹어야 할 이유가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인지라 고민하다가 당나귀는 굶어 죽었다.
- ⑤ 장자가 산에서 큰 새를 잡으려 활을 겨누다가 문득 매미를 노리던 버마재비를 보았다. 그 뒤에서 까치가 버마재비를, 장자가 겨냥했던 큰 새가 까치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서 몽둥이를 든 산지기가 장자를 쫓아내려 달려오고 있었다.

39.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더미의 역설’은 기준점을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② 모른다는 것이 분명한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 정책이 나오게 되었다.
- ③ 기준점의 존재에 대한 스토아학파의 확신은 배중률의 철저한 고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배중률을 고수하더라도 아는 것만 말한다는 원칙을 양보한다면 ‘더미의 역설’은 생기지 않는다.
- ⑤ “모른다.”라는 대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된 데에는 지식과 분명함을 동일시하는 지식 개념도 관련이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